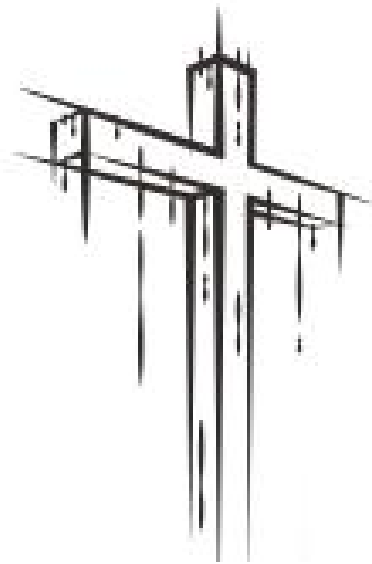


십자가로
가게이...

예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호교회 교육2부

안내의 말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려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철저히 혼자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고, 고통스러우셨고, 몸이 버티지 못해 쓰러지기도 하셨습니다. 길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셨고,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쳐다보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10개의 그림을 따라가면서 그림을 통해 묵상하시고 모듬별로 함께 기도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동 중에는 장난이나 잡담을 자제하고 침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림 속 인물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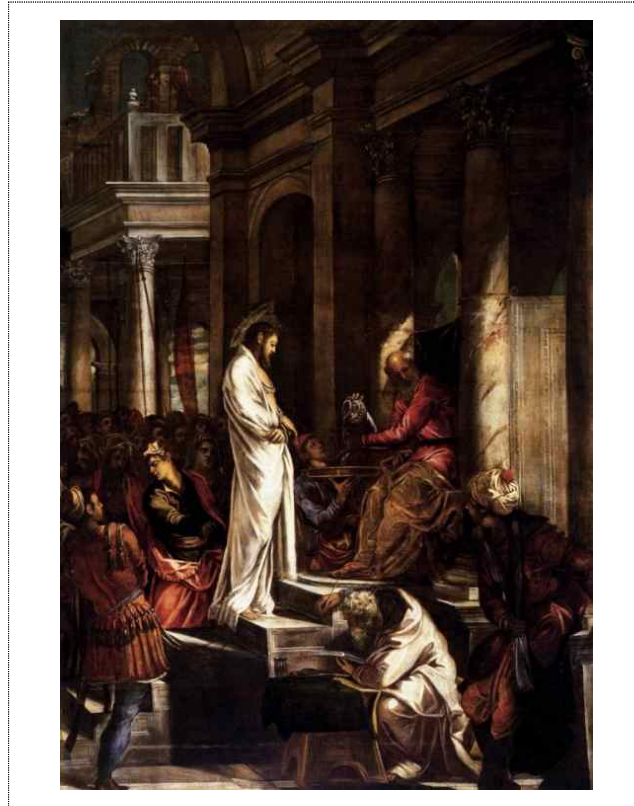
준비기도

예수님,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밝혀주셔서 깊은 사랑과 뜻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회피하고 주님이 겪으셨던 슬픔과 외로움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잠시나마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안내)

제 목	그 림	위 치	내 용
시작 전		유아부실 앞	시작 전 기도
제1처 : 예수님께서 사형선고 받으시다		유아부실 앞	그림묵상(1분) -> 기도문 읽기 (1분) -> 다음 장소로 이동
제2처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계단 우측코너	그림묵상(1분) -> 기도문 읽기 (1분) -> 다음 장소로 이동
제3처 :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시다		계단 좌측코너	그림묵상(1분) -> 기도문 읽기 (1분) -> 다음 장소로 이동
제4처 :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지다		유치원 우측 화단	그림묵상(1분) -> 기도문 읽기 (1분) -> 다음 장소로 이동
제5처 : 기력이 다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넘어지시다		유치원 좌측 화단	그림묵상(1분) -> 기도문 읽기 (1분) -> 다음 장소로 이동
제6처 :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시다		사택 담벼락	그림묵상(1분) -> 기도문 읽기 (1분) -> 다음 장소로 이동
제7처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놀이터 옆 울타리 (전도본부)	그림묵상(1분) -> 기도문 읽기 (1분) -> 다음 장소로 이동
제8처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놀이터 옆 울타리	그림묵상(1분) -> 기도문 읽기 (1분) -> 다음 장소로 이동
제9처 :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다		1층예배실 앞(우측)	그림묵상(1분) -> 침묵으로 기도문 읽기 (1분) -> 예수님께 마음 적기 -> 십자가에 달기 -> 이동
제10처 :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1층예배실 앞(좌측)	그림묵상(1분) -> 침묵으로 기도문 읽기 (1분) -> 묵상 마침

제1차 : 예수님께서 사형선고 받으시다



틴토레토 (Tintoretto, 1518-1594)

빌라도 앞의 그리스도, 빌라도가 손을 씻고 있음

(Christ before Pilate, Pilate Washing his Hands)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군중들의 폭동이 일어나 로마로 자신의 유대인들의 통치 상황이 황제에게 보고 될 까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한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것은 당신들의 일시오.”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예수가 아닌 죄수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을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넘겨주었다. 그림을 보면 예수를 외면한 빌라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는 내 탓이 아니라는 표정으로 손을 씻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스스로의 잘못된 모습을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빗대어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보아야 한다. 오히려 세상이 예수를 대우하고 인정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과 반대로 예수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나, 신앙을 성찰해야 한다.

기도문 읽기

예수님, 주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홀로 계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주님을 변호해 주는 이도
한명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외된 자들과 무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기울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선고받는 자리에 계실 때에는
아무도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도 때로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단을 맞거나 지적당할 때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 짐을 져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비판이나 불공평한 처우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나에게 상처주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제2처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후안 데 발데스 레알 (Juan de Valdes Leal, 1622-1690)

골고다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Christ Carrying the Cross on His Way to Calvary)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고통의 길을 준비한다. 총독의 휘하에 있는 로마 군사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폭력을 행했다. 예수는 힘없이 당해야 했으며, 그들이 만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맡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야 했다. 완악하고 이기적인 사상은 군중들을 흔들며 놓았고 끝내 예수께 십자가를 지게 했다. 예수는 홀로 그 험난한 길을 가셨다. 의지할 것은 들고 있는 십자가 밖에 없으신 상황에서 굶은 핏방울을 흘리시며 십자가를 안고 가신다.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십자가를 인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핏 값으로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그분이 홀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얼마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느나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홀로 지셨음을 기억하며 나의 십자가를 시인하며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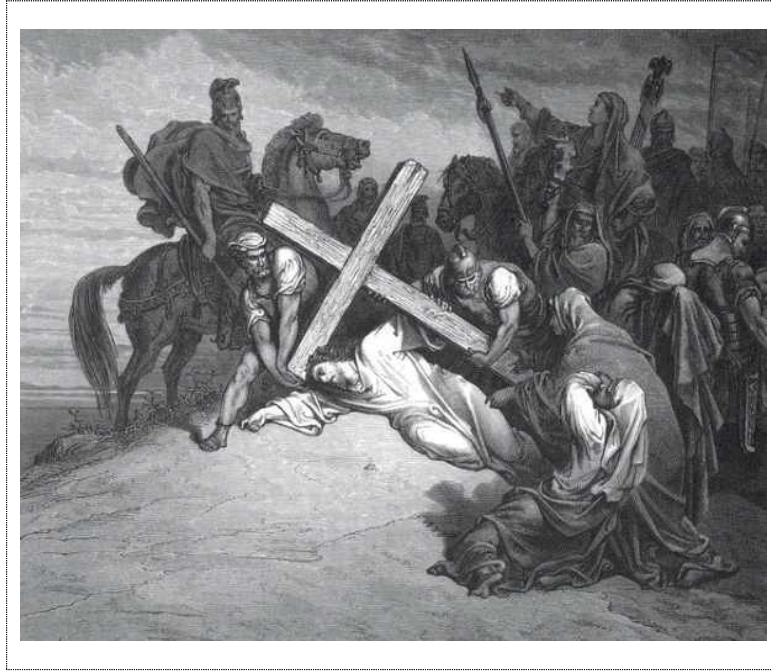
기도문 읽기

예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자신의 것으로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갈보리 언덕 죽음의 자리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따를지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때로 저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데도, 불평 없이 그 십자가를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늘 통회하며 살겠습니다.

제3처 :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시다



귀스타프 도레 (Paul Gustave Dore, 1832-1883)

예수 십자가 아래 쓰러지다 (Jesus Collapses Under the Cross)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가벼운 무게가 결코 아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의 어깨로 찢으며 들어간다. 어느덧 주변은 구경꾼의 무리가 모여 큰 인파로 불어났다.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의 육체로 오셨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한다. 그러나 예수의 지치신 몸은 이제 그 무거운 십자가 밑에서 비틀거리신다. 한 차례의 날카로운 아픔이 예수님의 영혼을 꿰뚫어서 그분은 기진맥진하고 땅바닥에 쓰러지신다.

그림을 보면 군사들과 큰 인파가 주님의 쓰러짐을 둘러싸 구경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를 향한 우리의 무서운 배신과 이기주의적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배척하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도리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의 영이 솟아나게 하여 죄로 얼룩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일으켜 준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당신께서 쓰러지셨다. 예수의 쓰러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겠다.

기도문 읽기

예수님,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아주 많이 무겁습니다.
육신의 기력이 다해 곧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님을 도와주려 하지 않고 병사들은 주님을
재촉하며 끌고 가기에 바쁩니다. 주님을 외면하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외면한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힘든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못들은 척 외면하고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죄와 싸우려 노력하지도 않고, 쉽게 무너져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4처 :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지다



제임스 자크 티소 (James Tissot, 1836-1902)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다

(Simon the Cyrenian Compelled to Carry the Cross with Jesus)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막 15:21)” 예수의 십자가가 넘어지면서 멈추는 듯 했지만 아니었다.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된다. 자의도 아닌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다. 그는 강제로 지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의 십자가 무게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힘을 다해 함께 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본인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은꼴로 변해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처럼 누군가의 고통에게 내 어깨와 힘을 온전히 빌려준 적이 있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 보아야한다. 예수로 인해 억지로 진 하나의 십자가,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예수는 그 십자가도 소중히 쓰신다. 억지로 시작해도 끝까지 감당하다보면 예수를 닮아가는 희망을 보게 된다.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인생길에서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해 낸다면 주님을 닮아있는 희망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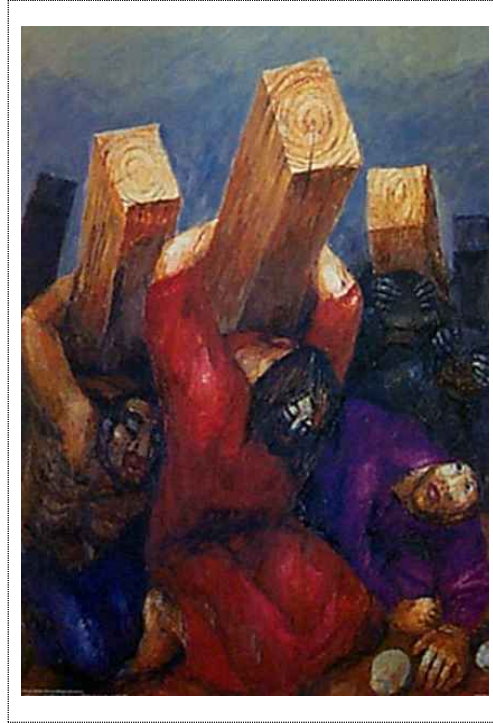
기도문 읽기

예수님, 병사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질까봐 군중 속에서 한 사내를 끌어내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는 구경꾼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모른 척 한 적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 헐벗은 자, 갇힌 자를 보면 도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부르시는데도 못 들은 척,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자리에 겸손히 고개 숙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5처 : 기력이 다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넘어지시다



지거 쿠퍼 (Sieger Köder, 1925-2015)

기력이 다하신 예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 (Jesus falls a second time)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는 두 번째로 쓰러지셨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예수의 얼굴에서 지독한 피로감이 묻어 있음을 보게 된다. 오른쪽의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은, 모두 십자가를 지고 힘에 겨워하고 있는데 홀로 가쁜 모습이다. 이 모든 상황이 신기하다는 듯, 혹은 경이롭다는 듯 예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의 표정이 낯설지 않다. 왜 그럴까? 그건 영락없는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 가운데 몇 번이나 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된다.

예수만 아니라 두 죄수도 함께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간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한 죄수는 자신을 예수께 맡김으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음을, 또 한 죄수의 비난은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음을 말이다.

지금쯤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있는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여정을 통해 수없이 들여다본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복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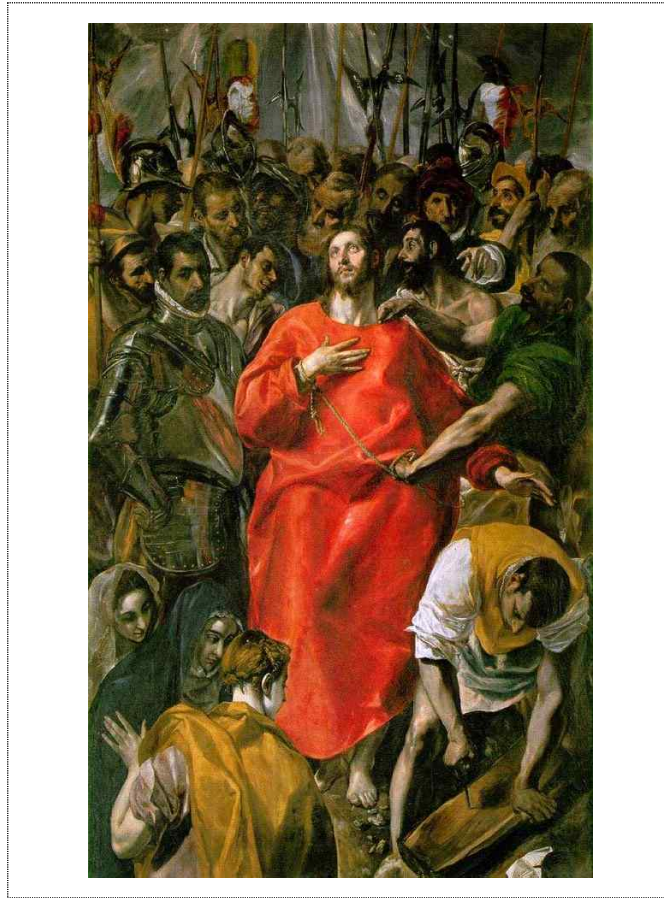
기도문 읽기

주님께서 두 번째로 길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점 점 더 무거워져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셨고, 몸을 세워 다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주저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낍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작은 일로 좌절하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서기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인내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6처 :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시다



엘 그레코 (El Greco, 1541~1614)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 (The Disrobing of Christ, 1579)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려는 장면이다. 오른쪽에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부분에 구멍을 뚫는 사람이 보이고, 이를 보는 세 명의 마리아가 전경 왼쪽에 보인다. 화면 중앙의 예수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의해 옷이 벗겨지고 조롱을 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모습은 예수의 옷을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는 복음서의 기록을 연상시킨다. 중앙 왼쪽 갑옷을 입은 병사는 관람자를 바라보며 관심을 예수 쪽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 로마군의 백부장 혹은 본디오 빌라도 등으로 추측되고 있다.

눈물이 어린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예수와 하늘의 소통은 수직의 구름 기둥으로 표시되고, 그의 희생은 화면의 시각적 중심인 붉은 의상에서 강조된다. 주요 인물 의상의 선명한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은 화면 왼쪽 군인의 갑옷에 반사되어 색채의 화음을 들려주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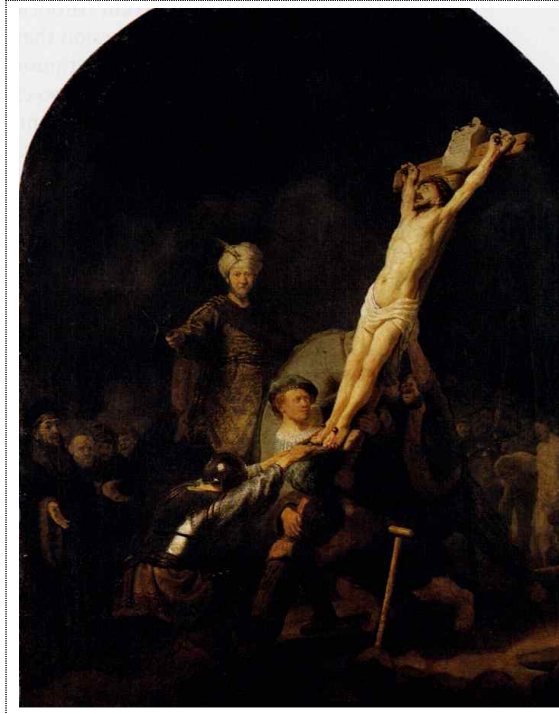
기도문 읽기

병사들은 주님께서 값어치 있는 물건을 지니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옷을 벗기고 주사위를 던져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허덕이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님, 욕심에 눈이 멀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유익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십자가의 자리조차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눈을 돌이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7차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렘브란트 (Rembrandt, 1606-1669)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 (The Raising of The Cross, 1633)

네델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그리는 중이었다. 그는 얼마 후에 차지할 역작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군중들을 한 사람씩 그려나갔다. 온 마음을 쏟아서 여러 군중들을 그려 넣었다. 정신을 집중하여 사력을 다해 붓을 놀렸다.

마지막으로 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은 자신의 얼굴로 대신했다. 바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내가 이 군중들 가운데 서 있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말인가?’ 그 순간 렘브란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만지작거리면서 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뜨거운 눈물이 그의 두 뺨을 적셨다. 렘브란트는 완성된 그림을 붙들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 그러자 가슴 밑바닥에서 ‘쿵쿵’거리며 올라오는 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십자가 양편에서 대못을 내리치는 소리, 비명을 지르며 고통하는 예수님의 울부짖음, 그리고 군중들의 함성 등이 뒤섞여서 렘브란트의 귓전에 울려오자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났다. 순간적으로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 그리고 신음하면서 중얼거렸다. “맞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끝나자마자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을 울면서 회개했다. 십자가를 예술의 도구로만 다루었던 것도 통회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믿음을 자백했다.

그제서야 렘브란트는 자신이 그려놓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았다.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기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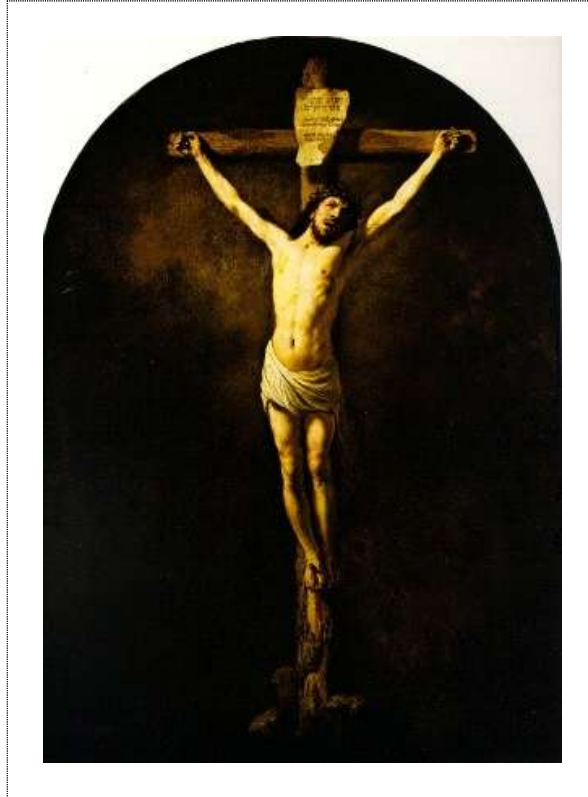
기도문 읽기

주님께선 스스로 지고 오신 십자가 위에 누우셨습니다.
병사들은 커다란 못을 가져와 손과 발에 박았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셨을 뿐인데,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여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족들과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아파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 못들이 주님의 살에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생각하며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제8처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렘브란트 (Rembrandt, 1606-1669)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Christ On The Cross, 1631)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외하면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다. 성경에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했으니, 태양마저 빛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개신교의 사상이 숨어 있다. 이것은 세상은 온통 어둠에 휩싸여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강조한 것이고,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배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발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서는 너무나 나약하시다. 그분의 입술은 갈라졌고, 그분의 입은 부르짖으며, 그분의 목은 타들어가 침조차 삼킬 수 없는 지경이 되셨다. 그분의 미간은 찌그러졌고, 그분의 손과 발은 못으로 찢겨 나갔으며, 그분의 팔과 다리는 고통으로 인해 뒤틀어졌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이렇게 무력하게 죽으셨을까?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살펴보자.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아무 것도 하실 수가 없으셨다. 그분은 다른 인간들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나약하게 죽으셨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신앙고백을 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마태복음 27:54)

그분은 힘을 있으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연약하게 태어나셨고, 연약하게 죽으셨다.

그분의 연약함은 무능력, 굴복, 자학, 패배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기희생, 자기부정, 겹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을 선택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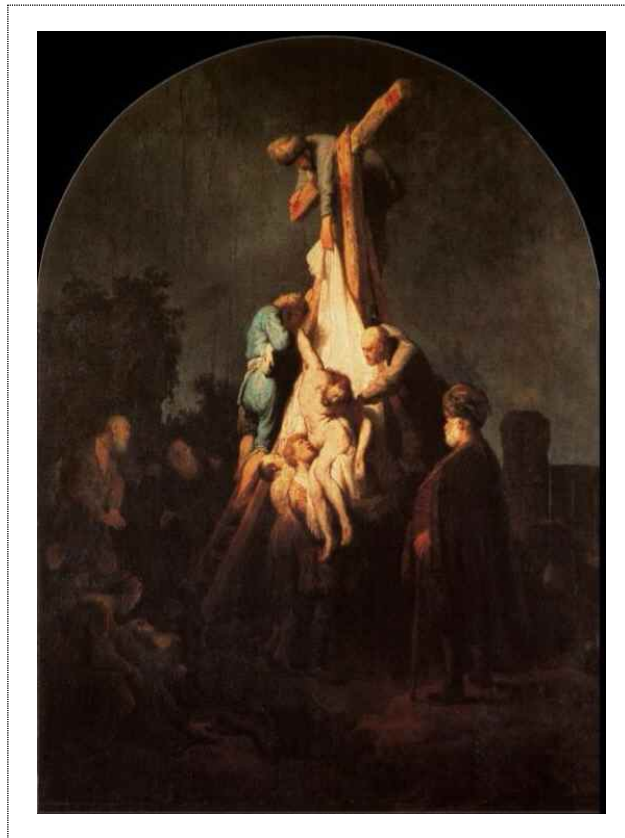
기도문 읽기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주님을 못 박은 병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어머니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주님, 잠시 멈추어 서서 나를 향해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죽기로 결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섯 시간 동안 고통 속에 매달려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제9처 :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다



렘브란트 (Rembrandt, 1606-1669)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Descent from the Cross, 1634)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은 음산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예수님의 시신에서 빛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예수님을 감싼 천도 이에 반사된 것처럼 아주 하얗다.

렘브란트의 예수님은 불품없이 마른 몸으로 표현된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처연하고 비참한 것이었는가를 볼 수 있다.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 슬퍼하다가 아예 기절하여 누웠고, 그 양옆에 여인들이 정성껏 돌보고 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온몸으로 떠받치는 청년이 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몸 전체로 안고 있는 요한과 더불어 오른 쪽에 조금 거리를 두고, 한 유대 부자이며 고위관료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아마도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놓겠다고 나섰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였던 요셉으로 추정된다.

등장인물 일부가 직간접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다. 이 시간은 애통해하고 통탄해야 할 때이지만, 예수님과 몇 발치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 듯한 느낌을 집어넣었다.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좀 지켜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렘브란트 그림에서 예수님의 오른 팔을 붙들고 있는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는 누구일까? 바로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자기 마음을 표현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우리의 반역, 우리의 죄와 불의함이 들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죄악을 대신 지고 못 박히시는 아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들어 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생각과 판단,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문 마음 속으로 읽기(침묵)

예수님은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는 고요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여인들이 주님의 몸을 덮은 피와 먼지를 닦아내었듯, 우리도 주님의 고난당하신 몸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기 원합니다.

주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매일 죽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우리들도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10차 :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라파엘로 (Raphael, 1483-1520)

예수님께서 묻히시다 (The Entombment, 1507)

예수님의 몸은 장례를 치를 준비가 되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무덤을 주님께 드렸다. 골고다에서 꽤나 먼 곳이었고 여기까지 숨을 쉬지 않는 주님을 모시고 왔다. 오는 길에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옆에서 실신하기도 했다. (오른 쪽의 배경에는 골고다 언덕이 멀리 보인다)

※보이는 여러 인물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다르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도 다 다르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역시 다르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림이다.

기도문 마음 속으로 읽기(침묵)

예수님의 무덤 안에 누이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슬픔 가운데 잠겨 눈물 흘리는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닫혀있는 돌문을 보며 뒤돌아섭니다.

주님, 때로는 실패와 슬픔이 우리를 압도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큰 돌문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